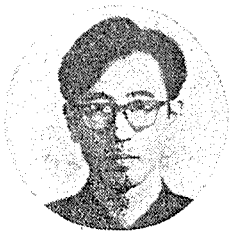
대한 기생충학회 제 18 회 학술대회 참 관 기

조 승 열



대한 기생충학회의 학술대회가 1976년 11월 6일(토) 맑은 가을날씨에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의대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잘 알려진 대학으로 우리의 학회는 개교 이래 세번째로 개최하는 학회라고 하며 학장선생님이하 교직원여러분들의 배려로 학회장은 국화꽃으로 아늑하게 꾸며지고 휴게실 등 여러가지 편의가 제공되었다.

학술대회는 아침 9 : 00시에 시작, 오전 12 : 30까지 210분등안 21개의 연구논문을, 12 : 30분부터 오후 2 : 00시 까지 기념촬영 및 총회, 점심식사, 오후 2 : 00부터 오후5 : 00시까지 180분간 14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바쁜 일정이었다.

기생충학회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분한 학회분위기 속에서 연구발표에 찰못이 있으면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훌륭한 업적에 대하여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토론이 활발한 전통을 가진 학회이어서 의학계에서도 정평이 있는 학회임을 자랑하여 왔다.

올해 제18회 정기 학술대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짜임새 있었고 소득이 많았던 학회가 아니였었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평이었다. 첫째로 많은 연구발표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과거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에는 오후 5시정각에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허락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신 여러 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나 한다. 둘째로 이번학회에서는 실제로 31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발표가 있었다는 점이고 이런때 소홀하게 지나칠 수 있는 토의도 또한 활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발표된 연구 업적들이 과거보다 훨씬 앞선 학문적 경지에 도 달한 것이 많았다는 점이고 셋째로 연구 발표자들이 과거보다 젊은이들이 많아서 노교수로 부터 새얼굴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발표에 임하였다는점이다. 이것은 확실히 중요한 일로써 앞으로 우리들의 기생충 학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새 젊은이들이 계속 참여한다는 점에서 학회의 앞날을 밝게하는 것이 아니었나 한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중에서 좋은 논문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받는다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대답하겠으나 나의 의견으로는 대강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흥미로웠다.

연세의대의 임경일박사는 자유생활아메바에 산성인산분해효소가 존재함을 전자 현미경으로 증명한 연구를, 안영겸선생은 간디스토마에 감염된 흰쥐에서 비만세포라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세포의 운명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연구를, 민득영선생은 후루벤다졸이라는 약품을 투여했을 때 토끼에 감염된 간디스토마가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고려의대의 정계현선생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간디스토마에 전에는 알지 못하던 전립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또한 니크로포란이라는 약품을 사용했을 때 간디스토마의 표피와 생식기에 심한 붕괴가 일어남을 전자현미경으로 증명하였으며 고려의대 주경환 선생은 간디스토마 감염된 토끼의 붉은 피톨, 흰피톨을 섭취하여 파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중앙의대의 송철용 선생은 회충, 소의 간에 기생하는 간질 및 간디스토마에 있는 굳기름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생화학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하였으며 역시 중앙의대의 이순형교수는 간질에 있어서 핵산과 관계 있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구성성분에 대한 생화학적 성질에 대하여, 또한 간디스토마의 당 및 아미노산 대사에 대한 자기 방사법적연구를 발표하였다. 서울의대의 채종일 선생은 우리나라 농촌에 크게 유행하는 요충은 집단치료 하였을 때 재빨리 다시 감염되는 요충의 재감염성질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감염양상에 대한 연구를 발

표하였고 서울의대의 서병설교수는 제주도에 유행하는 사상충을 치료한 다음 새로운 방법으로 검사한결과 모두 완치되었음을 증명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기타 충남의대의 신대환선생, 김송환교수, 국립보건연구원의 김남수선생, 김동찬 박사, 부산의대의 송수복선생, 이화의대 민홍기 박사 경북의대 황재택선생, 최동익 교수 등이 각각 기생충의 여러분야에 대한 귀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상 주마간산격으로 말한 연구 이외에도 과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간 여러가지 기생충학적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여 좋은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이번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중에서 인상깊었던 연구들을 택하라면 나의 개인적 선택으로는 고려의대 정계현선생의 간디스토마의 웅성생식기에 대한 연구였고, 논리적이고 정한 발표를 하였던 것으로는 서울의대의 채종일선생의 요충에 관한 연구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이분들이 모두 학회의 젊은 엘리뜨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마음 든든한바 있었다

〈필자=서울大醫大기생충학 전임강사〉

토막상식

이불은 잘 말려야 된다

땀이나 피부에서 증발하는 수분에 의하여 이불은 1주일 동안 적어도 1*l*의 수분을 흡수한다고 한다.

또 밀폐된 양옥의 방에서는 습도가 높아서 이불의 수분이 잘 증발하지 않아서 감기와 류머티즘의 유인이 된다고도 한다.

그러므로 이불은 햇볕에 말려야 하는데 합섬면은 햇볕에 변질하기 때문에 그늘에서 말려야한다. 또 햇볕을 받아 솜이 부풀면 함기량(含氣量)이 더해지므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

단 여름에는 말린 다음 그늘에 펴두어 열을 발산시키고 나서 사용한다.